

# 국문 요약

---

## 1. 서론

○ 한국 정부는 2023년 2월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발생 직후 정부-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긴급구호부터 조기복구 단계까지 인도적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KOICA는 3개 NGO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튀 우정마을 사업을 조성했으며, KOICA와 시민사회는 이 성과를 기반으로 포괄적 파트너십인 RAPID(Responseive Action and Partnership Initiative for Disaster, 해외재난대응협력 이니셔티브)을 신설했다.

○ 본 연구는 ‘인도적 대합의(Grand Bargain)’ 및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원칙과 규범에 기반하여 민관(공공, 시민사회 및 기업 등) 협력체계 개선안 도출을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다.

- 타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분석을 통한 국내 인도적 지원 생태계의 강점을 반영한 포괄적 이해 관계자 간 협력과 자원 확대 방안 제시
-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4개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체계의 특성과 역사적 발전 과정 분석을 통해 핵심적 작동 기제(enabler) 제시, 핵심적 작동 기제 구축을 위한 장애 요인 해소 방안 도출 및 RAPID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도출
-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브랜드 공유, 모금 및 분배, 기금형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협업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실현 및 포괄적 이해관계자 간 협업의 성과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파트너십 형성방안과 성과지표 제시

○ 본 연구는 한국의 국내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연구 범위를 설정했다.

-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글로벌 동향 및 정책 분석
- 4개 공여국(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의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협력체계 조사·분석
- 국내 인도적 지원 분야 이해관계자 조사·분석하여 특성에 부합하는 포괄적 파트너십 체계구성
- 국내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도출 및 홍보방안 구성

○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인도적 지원 포괄적 파트너십 체계를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파트너십 협력체계, 파트너십 핵심작동기제(enabler)와 장애요인(disabler) 도출과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안이다.

- 효과적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종합적 접근, 실제 사례 통한 교훈 중심 접근, 단계적 접근, 참여적 접근을 활용했다 그리고 ‘문헌조사’, ‘심층인터뷰’, ‘초점집단인터뷰’ 및 ‘이해관계자 워크숍’ 등 네 가지 조사방법을 실행했다.

## 2. 인도적 파트너십 및 국가 공동 대응 플랫폼

- 전 세계 인도주의 대응은 점차 현지화, 유연한 자금 조달, 조율된 공동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파트너십 플랫폼은 위기 피해 인구를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부문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면 포용적 거버넌스, 민첩한 운영, 공동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적 대응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 본 연구는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플랫폼의 제도적·사회문화적 환경, 설립 배경, 추진 체계와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플랫폼의 핵심 작동기제와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RAPID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2-1. 일본 (Japan Platform, JPF)

- Japan Platform(JPF)는 정부 자급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전체 예산의 약 76%가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JPF는 정부, NGO, 기업 파트너가 함께하는 공동 플랫폼으로, 자금 조달의 예측 가능성, 이해관계자 참여, 신속한 재난 대응을 보장한다. 특히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독특한 기업 회원 모델을 통해 민간 협업을 유도한다. 거버넌스 구조 상 외무성이 핵심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의사결정과 사업 승인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지원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플랫폼의 자율성과 독립성 측면에는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 2-2. 영국 (Disasters Emergency Committee, DEC & Start Network)

- 영국은 DEC(Disasters Emergency Committee)와 Start Network라는 두 개의 주요 플랫폼을 운영한다.
  - DEC는 미디어, NGO, 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재난 발생 시 공동 모금을 통해 신속한

재원 확보 가능. 미디어 기반의 모금 캠페인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모금액은 회원 NGO를 통해 집행.

- Start Network는 중소기업 재난 대응에 특화하여 설립되었으며, 영국의 국제NGO뿐만 아니라 현지에 기반한 국가NGO와 지역NGO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로 현지 주도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혁신 방법을 지속적으로 시도
- 두 플랫폼은 정부 주도보다는 시민사회 중심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RAPID가 자율성과 민간 주도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 2-3. 캐나다 (Humanitarian Coalition, HC)

- Humanitarian Coalition(HC)은 캐나다 정부의 주요 파트너로서 운영되며, 전체 예산의 75% 이상이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HC는 회원 NGO를 위한 자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다년간의 협약을 캐나다 정부와 체결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 발생 시 공동 모금과 연계한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제공함으로써 NGO의 자원 동원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
- HC는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회원 간 공동 심사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자원의 투명한 배분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정부-민간 간 공식 협약 체계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참여적 거버넌스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 2-4. 호주 (Emergency Action Alliance, EAA)

- Emergency Action Alliance(EAA)는 호주에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플랫폼으로, 특정 긴급 상황에 대해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받는 민간 주도 이니셔티브로 운영되고 있다. EAA는 미디어, NGO, 기업 파트너를 공동 대응 및 모금 활동에 참여시키는 포용적 재난 대응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 플랫폼은 ABC, SBS 등 주요 국가 언론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EAA는 신속하고 투명한 자금 분배에 중점을 두어 인도적 필요에 적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플랫폼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
- 동 연구에서 조사한 공동 대응 플랫폼들은 정부, NGO, 언론,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유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플랫폼은 부문 간 협업을 촉진하여 공동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시의적절하고 영향력 있는 긴급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구축한다.

### 3. 한국의 인도적 파트너십 체계

○ 본 장에서는 한국 인도적 지원 시스템의 법적 기반, 민관 파트너십, 그리고 RAPID 프로그램의 발전 과정을 심층 분석한다. 그간의 주요 성과를 조명하고 핵심 과제를 식별하며, 한국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과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 **정부의 인도적 지원제도:** 정부는 「인도적 지원 전략」을 2015년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에 따라 수립했고, 이후 2019년 개정했다. 정부의 인도적 지원ODA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의 경우 예산확정액 기준 7,346억 원으로 17년 대비 10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 **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및 민-민 파트너십:** 정부-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은 2012년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출범과 함께 제도화됐다. 2012년 8개 단체의 해외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해 연간 약 20억 원의 규모로 시작했으며, 2024년 약 50억 원으로 확대했다. 시민사회와 기업의 참여를 통해 실시되는 인도적 지원 규모가 작지 않다. 2023년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체 규모는 2,993억 원이며, NGOs가 자체 모금과 후원을 통해 실행한 인도적 지원 규모는 2,236억 원이다(KCOC, 2024). NGOs가 실행하는 인도적 지원 규모는 시민과 기업의 기부를 통해 그 재원을 형성한다.
- **RAPID 출범:** 정부는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발생 이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 대응 활동을 전개했다. KOICA는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추진한 튀르키예 우정 마을 사업」을 모델로 하여 기존의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내 인도적 민관협력 브랜드「RAPID(Responseive Actions and Partnership Initiative for Disaster)」를 2024년 시작했다. RAPID는 현재 6개의 NGO(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월드비전, 희망친구 기아대책, KCOC), KOICA,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급성 식량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아프리카 급성 식량 위기’ 공동 대응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RAPID 파트너십 협력 등을 위해 KOICA와 MOU를 맺은 바 있다.
- **주요 과제 및 기회 요인:** RAPID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제한된 자금, 협소한 이해관계자 기반, 명확하지 않은 운영 지침의 부재 등이다. 이에 따라 재원 다변화, 중소기업 조직의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확보가 핵심 우선과제로 제시된다. 브랜딩 전략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RAPID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도 제기된다.
- **이해관계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 RAPID의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분위기는 긍정적이나, 보다 체계적인 조정 구조와 포용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기관은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NGO들은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요청하였다. 기업 및 언론은 투명한 운영과 인도주의 원칙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인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제 혜택 도입, 독립적 거버넌스 기구 조성, 공동 모금 플랫폼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다수 이해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

**참여 촉진, 장애 요인 및 유인책 요약**

| 수준 | 촉진 요인          | 장애 요인      | 유인책                          |
|----|----------------|------------|------------------------------|
| 거시 | 법률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 | 경직된 자금 구조  | 세제 혜택, 공로 인정 프로그램 도입 등       |
| 중간 | 조정 플랫폼         | 데이터 공유의 제한 | 공동 자원 접근 기회, 공동 브랜드 활용 등     |
| 미시 | 역량 강화 프로그램     | 행정적 부담     | 교육 및 훈련, 조직 가시성 제고, 절차 간소화 등 |

- 상기 표는 RAPID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메커니즘들을 정리하며, 현재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 4.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RAPID 발전을 위한 두 가지 방향의 제안을 한다. 첫째는 현재 ‘RAPID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둘째는 현 RAPID가 공동모금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한 ‘공동모금플랫폼’이다.
- RAPID 실행 단계와 공동 모금 플랫폼 단계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결과 지향 프레임워크로서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을 제안한다. 동 프레임워크는 한국의 긴급구호 분야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필요한 촉진 요인과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단기, 중·장기, 그리고 궁극적 영향 수준의 목표들을 포함한다. 각 수준별로 핵심 성과 지표, 산출 지표, 결과 지표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KOICA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동 지표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한국의 인도적 파트너십 체계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책임성과 지속적 개선을 담보할 것을 권장한다.

#### 4-1. RAPID 실행 단계

○ RAPID의 실행 단계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긴급 구호 파트너십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동 단계는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들을 다룬다:

- **포용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다양한 규모와 역량을 가진 조직들이 RAPID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민간 기업, 언론, 학계, 기술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RAPID 러닝랩(Learning Labs)’을 도입하여 부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며 인도적 모금 및 대응에서의 혁신을 장려한다.
- **역량 강화:** 각 부문 파트너 조직들의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동 프로그램은 기술적 전문성, 경영 시스템, 국제 인도주의 기준 준수를 포함한다.
- **재원 확보 및 자원 동원:** RAPID 플랫폼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을 확대하여 긴급 대응을 위한 안정적이고 유연한 재원을 확보한다. 민간 기업, 재단, 일반 대중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 자원 동원 역량을 강화한다.
- **브랜드 가시성 제고:**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 RAPID의 가시성을 높인다. 언론, SNS, 파트너십 등을 활용하여 RAPID의 영향력 및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대중의 신뢰와 참여를 증진한다.
- **부가가치 및 시너지 창출:** RAPID의 긴급 대응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 인구를 지원한다. 우수 사례를 통합하고 다양한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대응의 질을 향상시킨다. RAPID만의 고유한 역량과 시너지 영역을 발굴하여 인도적 노력의 공백을 매운다.

**RAPID 실행 단계별 핵심 지표**

| 목표          | 지표                            | 설명               |
|-------------|-------------------------------|------------------|
| 포용성 확보      | 유형 및 규모별 등록 NGO 수             | 참여 NGO의 다양성 측정.  |
| 역량 강화       | RAPID 러닝랩 운영 횟수               | 교육 참여도 평가        |
| ODA 예산 확대   | KOICA 인도적 자원 예산 중 RAPID 배정 비율 | 재정적 기여도 평가       |
| 가시성 강화      | RAPID 관련 언론 보도 횟수             | 인지도 및 공공참여 수준 측정 |
| 시너지 및 효과 창출 | RAPID 공동사업 수혜 인원 수            | 연간 수혜자 수 추적      |

## 4-2. 공동모금플랫폼 단계

○ 공동모금플랫폼 단계는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이 국제 인도적 재정 조달에서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단계는 다음의 세 가지전략적 목표에 집중한다:

- **국제적 위상 강화:** 우수 사례, 성과 사례, 혁신적 접근방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한국 공동모금플랫폼의 국제 가시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모금 네트워크와 연계하고, 국제 포럼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교류를 통해 한국의 인도적 리더십을 강화함.
- **인도적 생태계 확장:** 지자체, 민간기업, 언론, 학계 등 더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플랫폼의 기반을 확대함, 부문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여 국내외 인도적 대응을 지원하는 견고한 생태계 조성
- **민간 자원 동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가치를 강조하고 인도적 재정 기여의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재정 참여를 장려함. 기업 및 자선재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참여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유연한 자원 확보를 도모함.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공동모금플랫폼 단계는 한국이 국제 인도주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시의적이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 동원의 핵심 주체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공동모금플랫폼 단계별 핵심 지표

| 수준 | 촉진 요인          | 장애 요인      | 유인책                          |
|----|----------------|------------|------------------------------|
| 거시 | 법률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 | 경직된 자금 구조  | 세제 혜택, 공로 인정 프로그램 도입 등       |
| 중간 | 조정 플랫폼         | 데이터 공유의 제한 | 공동 자원 접근 기회, 공동 브랜드 활용 등     |
| 미시 | 역량 강화 프로그램     | 행정적 부담     | 교육 및 훈련, 조직 가시성 제고, 절차 간소화 등 |

○ 본 단계는 공공 신뢰,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지표는 플랫폼의 가시성, 파트너십, 재정적 성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5. 결론

- 동 연구는 한국의 인도적 지원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 사례로부터 배운 교훈과 국내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RAPID는 조정된 재난 대응의 대표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촉진 요인으로는 견고한 법제도, 유연한 자금 메커니즘,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 등이 있으며, 이는 협력과 책무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 RAPID 실행 단계와 공동 모금 플랫폼 단계에 대한 정책 권고안은 이해관계자 참여, 자원 동원,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경로를 제시한다. 공동모금플랫폼으로의 전환은 한국이 국제 인도주의 분야의 핵심 리더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이러한 권고사항들을 실행함으로써 한국은 국제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포용성과 회복력을 갖춘 기민한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도적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